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인물 기능과 우주 인식

권복순*

|| 차례 ||

1. 서론
2. 인물의 기능
 - 2.1. 해원의 기능
 - 2.2. 천계 왕래의 기능
3. 혼돈과 질서의 세계
4. 신성한 본보기와 우주질서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원천강본풀이」 주인공의 여정을 끈으로 인물의 기능을 추출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신화의 속뜻에 다가서고자 한다.

오늘이의 여정은 이정표에 따라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의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목표는 자신의 정체성 찾기이며 후자의 목표는 신직 좌정이다. 첫째는 원천강에 도달하여 부모를 찾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정체성을 찾아준다. 둘째 신직 좌정담에서는 천계를 왕래하여 신직을 부여받는다.

서사 기능상 오늘이는 주체로서 해원의 기능과 천계 왕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능은 천신국의 거리과장에서 연행하는 무당의 기능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무당은 신과 간접적으로 교섭하여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는 반면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인 오늘이는 신과 직접적으로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뿐만 아니라 무당의 기능이 인간의 문제에 국한된 것과 달리 오늘이는 인간을 비롯한 범우주적 차원에서 신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원시 애니미즘 사고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인세와 원천강의 세계는 혼란과 질서의 대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엘리야데가 말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한 성(聖)과 속(俗)의 세계를 반영한다. 성(聖)의 세계인 원천강은 최고의 신인 옥황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곳으로서, 속(俗)의 세계인 인세의 신성한 본보기로 작용한다. 오늘이는 신국인 원천강을 모델로 혼란한 우주 질서를 바로잡는다.

오늘이가 거쳐 간 여정의 두 갈래는 신화의 제명(題名)인 원천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원천강은 신국으로, 인세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원천(源泉)을 의미한다. 오늘이가 신녀가 되어 인세에서 해야 할 몫은 원천강을 등사하는 일이다. 즉 이상향인 원천강을 본보기로 삼아 인세의 우주질서를 바로잡는 신으로 좌정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오늘이, 해원의 기능, 천계 왕래의 기능, 원천강, 신성한 본보기, 혼란, 질서

1. 서론

이 연구는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주체인 오늘이가 걸어간 여정을 끈으로 인물의 정체성 찾기 및 신직 좌정의 과정이 원시 애니미즘 시대의 신화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인물의 기능을 통해 신화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관에 다가서고자 한다.

「원천강본풀이」의 속뜻에 다가서고자 하는 시도는 일차적으로 「원천강본풀이」의 원형을 탐구하고 난 후속 작업에 해당한다. 앞선 연구가 신화의 통시적 변화에 주목하여 신화의 본디 모습의 재구에 힘썼다면¹⁾ 이 연구는 인물의 기능 분석을 통해 신화에 반영된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원천강본풀이」는 주체인 오늘이가 서사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는데, 주체와 이들과의 관련성이 우주 형성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화들과 차별성이 뚜렷하다. ‘오늘이’, ‘장상이’, ‘대사’, ‘연꽃’, ‘매일이’, ‘원천강’ 등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본풀이에는 주인공의 정

1) 「원천강본풀이」를 재구하는 작업은 신화의 역사성에 바탕을 둔다. 역사성은 연속과 단절을 거듭한다. 오늘이와 사계절의 관계는 우주 순환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지니지만, 이외에 들어온 민담이나 북방계 요소는 단절성으로 작용한다. (권복순, 「〈원천강본풀이〉의 본디모습 연구」, 『배달말』 56집, 배달말학회, 168면)

체성뿐만 아니라 태곳적 우주 형성에 관한 초월적 상상력이 갈무리되어 있다. 이 신화가 제주도 몇몇 무속신화에서 보여주는 수평과 수직 세계의 보편적인 서사 원리가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독특한 서사 원리와 신화소들과의 관계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용준은 제주도 일반신 본풀이를 설명하는 가운데 「세민황제본풀이」와 「원천강본풀이」를 언급하면서 현재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대상신의 직능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²⁾ 현용준이 밝힌 바와 같이 「원천강본풀이」는 아쉽게도 현재 채록 자료로서만 전하고³⁾, 곳의 현장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서사 무가에 해당한다.⁴⁾ 서사 무가는 곳에서 대상신의 근본을 풀이하는 설명담으로 기능할 때 제 몫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천강본풀이」와 같은 초월곳은 신화시대를 벗어남에 따라 개인의 기복신앙에 자리를 내어줌에 따라서 살아있는 곳의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자료를 채록한 1930년대만 하더라도 제주도 무가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대상신의 직능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다.

「원천강본풀이」는 자료의 빈약성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연구 실적이 많은 편이다. 기존의 연구가 텍스트 연구에 한정되었다면,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1차 원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⁵⁾ 이 이야기가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된

2)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21면.

3) 현전하는 「원천강본풀이」는 두 편이 전한다. 박봉춘본: 赤松智城·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1930-1933년 채록), 조술생본: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56년 3월-1963년 7월 채록)

4) 赤松智城·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上』, 의 서언(序言)에 의하면 노래가락과 축사는 대부분 구전에 의하여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문자로 기록된 적은 전무하여 여기에 수록된 몇 편도 모두 직접 무녀가 전승받아 부르는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며 본서의 체재는 경성을 중심으로 조선 중부 지방과 남부 제주도의 무가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하였다.

5) 김유진, 「〈원천강본풀이〉 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양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V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2010, 375-402면.

김명옥, 「〈원천강본풀이〉를 재화한 <오늘이>에 나타난 서술전략과 문제연구 - 그림책을 중심으로 -」, 『동화와 번역』, V22, 건국대동화와 번역연구소, 2011,

점을 감안하면 짐작컨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겨레의 마음을 붙들 만한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원천강⁶⁾의 해석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눈에 띈다. 주로 인간의 사주팔자나 점서⁷⁾, 나아가 점쟁이, 무당, 당나라 실존인물의 이름⁸⁾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가 뒤따랐다. 이와 같은 연구 방향은 일반적으로 무속신화의 제목이 해당신의 이름⁹⁾이나 신직¹⁰⁾인 경우가 많은데 제목인 원천강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원문에서 원천강은 ‘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것’과 ‘오늘이가옥황의신녀로화하얏다이리한오늘이인간에강림하야절마다덴기며, 원턴강을등사하게하얏다’에서 원천강의 뜻을 짐작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¹¹⁾

사주팔자나 점서 그리고 점쟁이로 보는 관점은 대부분 후자의 내용 가운데

33-59면.

김민수, 『〈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14.

이명현, 「〈오늘이〉에 나타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신화적 대안-「원천강본풀이」를 재해석한 에니메이션〈오늘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V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119-147면.

6) 赤松智城·秋葉隆 공저의 자료의 미주에 의하면 ‘원턴강’은 신국(神國)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7) 장주근,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연구:〈원천강본풀이〉〈세민황제본풀이〉〈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2.

8)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원천강본풀이〉연구-「神明에 대한 再考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0, 2010, 한국무속학회, 251-277면.

9) 천지왕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등.

10)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

11) ‘원천강’이라는 용어는 제주도 일반신본풀이 가운데 「초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의 의미는 점서(占書)라고 볼 수 있다. 「초공본풀이」나 「세경본풀이」에서는 주인공의 출생담에서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의미상 신화의 재편과정에서 변용되어 상투적, 관용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소사중아, 넌 남의 쌀 공짜로 먹고 가겠느냐? 단수육감을 가졌느냐? 오행팔괘를 가졌느냐? 원천강 사주주역을 가졌느냐? 우리 부부는 50원이 가까워도 남녀자식이 없으니 사주주역이나 가려 보아라.”

‘원천강을등사하게하였다’에 주목한 결과다. ‘원천’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遠天’, ‘源泉’의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 앞의 것은 ‘하늘에서 멀리 떨어진’의 뜻이며 뒤의 것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이 신화에서는 의미상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로는 뒤에 붙은 강(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강(綱)은 ‘벼리 강’으로, 이 때 벼리는 ‘그물의 위쪽 코를 맨 굵은 줄’¹²⁾을 뜻한다. 즉 그물이 시작하는 맨 처음이라는 것이다. ‘源泉’은 ‘물이 흐르는 근원, 수원(水源). 전(轉)하여 사물이 생기는 근원, 천원(泉源)’을 뜻한다. 이 때 源의 어원을 보면 ‘形聲자로서 原은 근원의 뜻. 뒤에 ‘原’이 평평한 들을 나타내게 되자, 水를 덧붙여, 근원의 뜻을 분명하게 했다.’¹³⁾ 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원천강’은 애초의 뜻인 근원 즉 원천(原泉)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듯하며 그 뒤에 붙은 ‘綱’도 같은 뜻으로 겹쳐 썼다고 볼 수 있다.¹⁴⁾

한편 ‘오늘이’의 명칭 때문에 시간의 신으로 보고자 한 논의¹⁵⁾가 있지만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시간의 줄기만 잡고 보는 바람에 단선적인 시각에 그치고 말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인공의 기능과 화소들간의 관련성을 집중 탐구하여 신화에 반영된 우주관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인물의 기능

이 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주인공의 여정을 끈으로 인물의 기능을 집중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자료는 박봉춘본을 기본으로 하고

12) 『漢韓大字典』, 民衆書林.民衆書林編輯部, 2008.

13) 『漢韓大事典』, 民衆書林, 民衆書林編輯部, 2008.

14) 권복순,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배달말』 56집, 배달말학회, 2015, 174면 참고.

15)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南道民俗學의 進展』, 태학사, 1998.

조홍윤, 「〈원천강본풀이〉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V23, 2011, 남도민속학회, 409-436면.

조술생본은 제외한다. 그 까닭은 조술생본은 박봉춘본보다 30여년 이후에 채록한 자료로서 이름은 같지만, 내용상 전혀 관련성이 없어¹⁶⁾ 같은 자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1 해원의 기능

오늘이는 서사의 진행에 따라 두 갈래의 여정을 거치는데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그것이다. 오늘이의 행적 중에서 나타나는 해원의 기능은 첫 번째 여정인 수평이동에서 일어난다. 해원의 기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지상에 거주하는 다른 존재들의 원(冤)을 풀어주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정의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일차 여정은 지상계와 원천강을 왕래하는 수평이동의 길이다. 다음의 이차 여정은 지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 천계 왕래를 하는 수직 이동의 길이다. 오늘이는 수평과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에 속한다. 신의 계보상 오늘이의 상위신은 옥황과 부모이다. 옥황은 가장 높은 신으로서 오늘이 부모에게 명령을 내리고, 오늘이 부모는 오늘이에게 신의 공수를 내린다. 오늘이가 세운 일차 여정의 목표는 자신의 정체성 찾기이며 그 과정에서 이차 목표인 신직 좌정의 목표가 발생한다.

오늘이가 길을 떠나는데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은 백씨 부인이다. 이 부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쌀을 어더다가 밥을 해연 천주왕께 디리고
일만군사 대접한 후, 천주왕이 자는 밤중에

16) 조술생본은 본토의 아기장수이야기의 변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술생본에서 주인공은 원천강이 아니라 원천강 남편이다. 짧게 소개하면 원천강의 남편이 왕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고자 했으나 아내인 원천강이 남편이 바람피운 줄 알고 관리에게 이르는 바람에 잡혀가면서 너(아내)의 팔자는 원천강이나 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다.

옥얼내기로 머리빗는 소래가 나니
 이상하다하고 백주노파안티 무르난
 우리 딸에 김니다 하난
 불너본즉 월궁선녀갓흔 아기씨라
 그날밤부터 배필을 무어서 살다가
 삼일 후에 옥황으로 올라가려하니
 천주왕께서 올라가 바리면,저는 엇지살며
 만약 이 자식이나 나면 엇니함내까 하난
 부인은 박이왕이 되야 인간 차재하고
 자식이란 낙커든 이흠을 대별왕 소별왕이라 짓고¹⁷⁾

2)

법지법(法之法) 마련하여 두고, 천지왕이 총맹부인광 하공일(合宮日)을 받아
 근 천상배필(天上配匹) 무어 두고 말을 흐뵈

“아들 성제(兄弟) 뒤시니 솟아나거들랑 큰아들일그넵에 성(姓)은 강씨 「대별
 왕」으로 이름 짓곡 작은 아들랑 성은 풍성(風姓) 「소별왕」으로 일름생명(姓
 名) 지와 두라.”¹⁸⁾

1) 자료에서 천주왕의 천생배필은 백주노파의 딸로서 월궁 선녀같은 아름
 다운 아기씨이다. 아기씨가 천주왕과 배필을 맺어 대별왕·소별왕을 낳으니 천
 주왕은 부인을 박이왕으로 승격시켜 인간세상을 차지하게 한다. 2) 자료에서
 천지왕의 천생배필은 총맹부인이다. 총맹부인은 대별왕·소별왕의 어머니이며
 천지왕의 부인이다. 두 편의 자료에서 백주노파의 딸인 박이왕과 총맹부인은
 동일인물로서 대별왕·소별왕의 어머니이며 천주왕(천지왕)의 배필이라는 점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천강본풀이」에서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은
 박이왕이나 총맹부인의 어머니로 볼 수 있으며 어머니 이름이 백씨인 까닭은
 ‘백주노파’의 ‘백’의 와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⁹⁾

17)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404면, (박봉춘 구연<천지왕본풀이>, 赤松至誠·秋葉隆 『朝鮮巫俗のの研究(上), 조선총독부, 1937)

18)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42면. (鄭周炳 口誦 實演)

19) 제주도 지역의 「천지왕본풀이」에서 각 편마다 인물의 이름이 일정하지 않다. 남
 주인공 명칭: 천지왕, 천지왕 아들, 여주인공 명칭: 총맹아기, 바지왕, 박이왕, 서수
 암, 갑오왕, 서수암, 총맹부인, 여자 인물의 부모: 박이왕, 백주늬은할망, 바구왕 총맹

오늘이의 여정의 발단은 백씨부인으로부터 부모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으로부터 비롯한다. 오늘이는 자신의 부모를 찾으러 가는 도중에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는데 이들 존재와 나눈 문답의 내용이 이들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장상이’와 ‘매일이’를 살펴보면 이들은 성별이 다르지만 단절된 상태로 있어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 의미에 대해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데, 오늘이를 만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천하대사(天下大蛇)는 야광주를 세 개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지 못하지만 오늘이를 통해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승천한다. 연꽃은 봄에 윗가지만 꽃이 피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 역시 오늘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꽃을 피운다. 이에서 보듯이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연적인 존재가 오늘이이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무속신화의 신들이 신직 좌정을 하기 위한 통과 의례가 주로 자신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오늘이는 범우주적인 존재들의 원(怨)을 풀어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오늘이의 부모가 있는 원천강은 사계절이 뚜렷한 곳으로 우주 질서가 잡힌 세계이다. 이와 달리 원천강 밖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들이 서로 뒤섞여 사는 원초적 세계로서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다녀옴으로써 혼란상태에서 벗어나 질서가 잡힌 세계로 전환한다.

오늘이가 수평 이동의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존재들의 문제를 떠안고 해결해 주는 것은 오늘날 곳을 여행할 때 무당이 행하는 기능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무당이 곳의 할 때 벌이는 다양한 행위들이 샤머니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때 샤머니즘의 본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개념은 그것이 갖고 있는 정신, 심리상의 정화(淨化)작용, 속칭 한(恨)을 해소하는 ‘한풀이’, 해원(解冤)의 기능이다.²⁰⁾ 현재 샤머니즘의 기능은 인간의 한을 풀어주는 범위로 축소되었지만 원시 애니미즘 시대에는 인간 동·식물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상이 해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들판에서 솟아난 오늘이가 여

부인, 바구왕총명부인 등으로 나온다. (김현선, 위의 책, 105쪽 참고)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여주인공 명칭이 박이왕, 총명부인으로 나오는가 하면, 여주인공과 부모의 이름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정재서, 『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 서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77면.

정에서 만난 범우주적 존재들을 대상으로 해원(解冤)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무당의 기능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2.2 천계 왕래의 기능

오늘이가 첫 번째 여정을 떠나게 된 동기를 마련해준 인물이 백씨부인이라면 두 번째 여정은 오늘이가 부모를 만남으로 인해 발생한다. 오늘이의 부모는 백씨부인과 달리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너를나흔날에옥황상제가우리를불러서원턴강을직히라고하니어느영이라거역할수업서,여기잇게되엿스나항상너의하는일을다고보잇섯스며너를보호하고잇섯다이리하야구경이나하라고허니만리장성둘러싸흔곳에곳곳마다문을열어보앗다보니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것이엇다²¹⁾

오늘이의 부모는 옥황의 하위 신격으로 그의 신직은 원천강을 지키는 일이다. 원천강은 만리장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며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여 있는 곳이다. 만리장성을 경계로 원천강은 오늘이가 거쳐 온 밖의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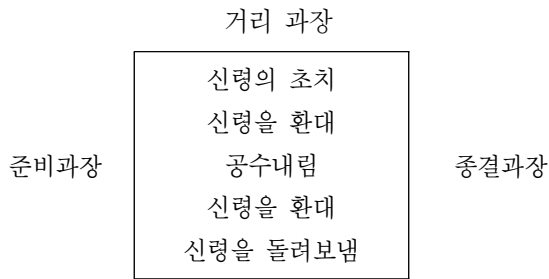
오늘이가 천계로 올라가는데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존재는 대사(大蛇)와 연꽃이다.²²⁾ 오늘이는 천계의 신녀가 되기 위해 대사(大蛇)에게 필요한 신성물을 구한다. 오늘이와 대사(大蛇) 그리고 연꽃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대사(大蛇)가 용으로 승천하지 못하는 것은 세 개나 되는 야광주를 입에 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꽃이 꽃을 번성하게 피울 수 없었던 것은 윗가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이는 대사(大蛇)가 가진 야광주의 수를 조정하게 하고 그것을 취함으로써 천계로 올라간다.

21) 赤松智城·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298면.

22) 엘리아데가 말했듯이 샤머니즘은 엑스터시의 기술이고 이것은 탈혼(脫魂), 빙의(憑依) 등의 심령 현상을 수반한다. 샤먼의 주술적 비상, 즉 천계(天界)왕래 혹은 천신(天神)과의 대화는 이러한 심령 현상을 통해 이루어진다.(정제서, 위의 글, 79면)

먼 옛날 인간들은 신령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능력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퇴화되고 오로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중재자인 무당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오늘날 인간과 신령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치성(致誠)의 형태로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무당의 처방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맺어질 수 있다.²³⁾ 오늘이가 들판에서 솟아나고 다른 존재들이 갈 수 없는 원천강이나 하늘로의 왕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조홍윤이 말했듯이 원시 애니미즘 사회에서 인간은 신과 직접 소통하였다고 보았을 때 오늘이신 신으로서 인간들을 비롯한 동·식물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인간들의 문제는 신과 직접 소통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무당이 처방을 내고 주관하는 제반의식에서 해법을 찾는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무당은 신령을 모셔 받들고 그들을 춤 노래 및 제물로 기쁘게 해 드리며, 신봉자들에게 신령의 말(공수)를 전해 준 다음 신령을 돌려보낸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무(巫)의 기본굿이 되는 천신굿의 구조를 제시하기로 한다.²⁴⁾



위의 천신굿의 구조에서 무당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 몫을 담당한다.²⁵⁾ 오늘날 무당은 굿에서 해원의 기능이나 천계 오르기의 모방행위를 통

23) 조홍윤, 『한국의 巫』, 정음사, 1983, 11면.
 24) 조홍윤, 위의 글, 142면.
 25)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노무(老巫)」에서는 자신의 집 근처에 살던 늙은 무당의 신당에 성관(星官)·칠성·제석(帝釋) 등의 무신도(巫神圖)를 걸어 둔 광경을 묘사했다. 이로 미루어 제석신에게 바치는 제석상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

해 신령을 환대하여 신의 공수를 받는 등 간접적으로 신성성을 입증한다. 반면 오늘이는 천신곳에서 볼 수 있는 무당과 유사한 뭇을 담당하지만 신으로서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존재들과 직접 소통하는 양상을 보인다. 기능적 측면에서 오늘이는 무당과 유사성을 보이지만 존재론적 측면에서 신이라는 점이 다르다. 오늘이는 신국인 원천강과 천계에 다녀와 신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존재들에게 공수를 내림으로써 지상의 여러 존재들은 마침내 혼란을 걷어내고 정화작용을 거쳐 질서를 되찾는다.

3. 혼돈과 질서의 세계

오늘이의 여정은 천계와의 소통 방식에 따라 직접 소통권과 간접 소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원천강은 오늘이의 부모가 천계의 명령을 받들어 다스리는 곳으로 천계와 직접 소통권이며 원천강 밖은 오늘이의 부모를 통해 천계와 소통되므로 간접 소통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세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하게 다르다. 먼저 만리장성을 경계로 원천강은 안과 밖으로 나뉜다. 원천강 밖은 세상 만물이 어울려 사는 자유로운 곳이지만 반면에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세계이다. 이곳은 인간과 동·식물 구분이 없이 살아가는 세계로서 서로 단절된 상태로 존재한다. 또한 스스로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곳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오늘이가 원천강을 다녀옴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비해 원천강 안은 사계절이 뚜렷한 곳으로 질서가 잡힌 곳이다. 오늘이 부모는 오늘이에게 원천강 곳곳을 보여주고, 오늘이가 신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일러준다. 오늘이는 부모아 만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로서 기능한다.

본풀이가 신의 근본을 풀이한 설명담이므로 궁극적으로 신직의 기능과 밀

을 가능성이 높다.(『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785면)

접한 관련성이 있다. 오늘이가 신녀가 되는 과정은 천계 승천의 여정을 거쳐 획득되는데 이 점에서 「천지왕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등과 차별성이 뚜렷하다. 이들 주인공들이 신직에 좌정하기 위해서는 통과례의 절차로 천계에서 시험을 거치는데 비해 오늘이는 자발적으로 문제를 떠안고 해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제주도 고유 무속신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신화의 뿌리는 삼성신화나 한라산신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화생관이 바탕이 된다. 그렇다면 천계 왕래의 여정과 신직 부여의 방법이 고유 신화와 다른 양상에 대해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남방계 신화의 고유성에 본토의 북방계 신화의 영향력이 덧입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옥황, 절, 등 도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걷어내면 남방계 고유의 특성²⁶⁾이 드러난다.

원천강 밖의 무질서한 자연의 세계는 「천지왕본풀이」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태초에 하늘은 혼돈(混沌)이었다. 하늘 머리가 자방으로 처음 열리고, 땅의 머리가 축방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새졌다. 이때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수되어 음양상통으로 만물이 생겨났다. 건우성·직녀성·노인성·북두칠성·삼태 성이 자리 잡았으나 어둠은 계속되었다. 천황닭이 목을 들고, 지황닭이 날개를 치고, 인황닭이 꼬리를 쳐 우니, 갑을 동방에서 먼동이 뜨기 시작했다. 이 때 하늘의 옥황상제 천지왕이 해도 둘, 달도 둘을 내보내어 천지는 활짝 개벽이 되었다. 그러나 하늘에 해와 달이 둘 떠 있으므로 백성들이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죽었다. 초목과 새, 짐승이 말을 하고, 귀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는 무질서한 세계였다.²⁷⁾

위의 내용에서 우주 태초의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이 신화에 의하면 우주는 애초에 천지혼합 상태였다가 천지개벽을 하고 이어 음

26) 권복순, 위의 논문, 2015, 185면.

27)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6면.

양이 상통하여 만물이 생겨난다. 만물이 생겨난 이후에 어둠이 계속되어 천지왕은 해도 둘, 달도 둘 내보내어 천지는 활짝 개벽이 되었지만, 천지는 여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혼돈의 세계는 천지왕의 아들인 대별왕·소별왕이 하늘에 올라가 해결하는데 반해 「원천강본풀이」에서는 들판에서 솟아난 오늘이가 지상에서 우주의 혼돈을 해결하는 양상을 보인다. 오늘이가 들판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는 천지개벽이 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 곳은 천지개벽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과 자연을 비롯한 만물의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어울려 살면서 신과 인간이 직접 소통하는 곳이다. 또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오늘이가 들판에서 홀로 살 때 야광주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이나 뱀이 야광주를 세 개나 물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야광주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몇몇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아신왕은 402년에 사신을 야마도 왕국에 보내 큰 구슬을 구하였고, 403년에 야마도 왕국에서 사자가 오니 왕이 이를 맞아 위로함이 특히 후하였다.²⁸⁾

2)

야마도 조정이 409년에 사신을 보내면서 야광주를 전하니 전지왕 (405-20)은 그 사신을 정중하게 대접하였다.²⁹⁾

1)과 2)의 기록에서 보듯이 야광주는 삼국시대 귀한 보물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시대에 야광주는 보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나 「원천강본풀이」에서 야광주는 신화적인 원형성을 함축한다. 「천지왕본풀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만물이 생겨나고 별이 있었으나 어둠이 계속되어 천지왕이 달과 해를 둘 내보내어 천지의 세상이 밝아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달과 해, 빛과 어둠, 야광주, 사계절, 매일, 오늘이, 뱀, 장상이 등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신화의 본질에 이르는 한 방법론이 될 것

28) 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 十一年 遣使倭國求大珠 十二年 倭國使者至 王迎勞之特厚 (S2: 46)

29) 三國史記 百濟本紀 腆支王 五年 倭國遣使送夜明珠 王優禮待之 (S2: 46)

이다.

「원천강본풀이」에서 야광주는 대사(大蛇)와 오늘이, 그리고 백씨부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끈의 구실을 한다. 야광주의 상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방법은 먼저 야광주와 관련이 있는 대사(大蛇)나 오늘이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이와 대사(大蛇)는 승천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야광주이다. 그런데 대사(大蛇)는 너무 많고 오늘이는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조정력에 있다. 따라서 대사(大蛇)는 오늘이에게 야광주를 두 개 주고, 오늘이는 야광주를 백씨부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승천할 수 있었다. 결국 야광주(夜光珠)는 숫자가 많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서 숫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의 일월조정 화소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대사(大蛇)의 기록 가운데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제시하기로 한다. 고대 종교사상³¹⁾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신화집인 『山海經』³²⁾, 「해외 북경, 제3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3)

30) 샤머니즘에서 유래한 삼수분화(三數分化)의 세계관을 도교에서 찾을 수 있다.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이기도 한 3·1이라고 이름한다. 3·1이라는 것은 도의 입구에 있어서 참된 경계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찌 얻어볼 수 있겠는가? 1은 나누어지지만 3을 포기하지는 못한다. 온전한 1은 아직 3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3으로 갈라지지 않아야 1을 보는 것이 잠시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도교 존재론의 기본 원리가 샤머니즘의 그것과 유동(類同)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재서, 위의 글, 83면)

31) 『山海經』은 제작 연대가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 전체의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부사년, 장광직 등이 고대 한국 문명 특히 고조선과 관련하여 거론한 상문명이 발상지를 요녕 지역으로 추정할 때 현재까지 중국 대륙에서 발굴된 성과로서 편년(編年)이 가장 오래된 요하 유역의 신석기, 청동기 문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재서, 위의 책, 38면)

32) 현재 남아있는 『山海經』은 모두 18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18권에는 모두 837條의 짙막한 문장들이 들어있다. 이 18권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은 「五臟山經」, 「海經」, 「大荒經」으로 불린다. (서경호, 『山海經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5면)

종산(種山)의 신(神)은 그 이름을 축음(燭陰)이라 하는데 그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낮이 되고 눈을 감으면 밤이 된다. 또 그가 거세계 숨을 내뿜으면 겨울이 되고 숨을 내쉬면 여름이 된다. 그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는데, 그가 숨을 쉬면 바람이 된다. 그 몸은 길이가 1,000리에 이르며, 無脣(之國)의 동쪽에 있다. 그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있으며 (그 몸은) 온통 붉은 색이다. [그는] 鐘山의 밑에 살고 있다.³³⁾

축음(燭陰)은 종산(種山)의 신(神)으로 밤낮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을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뱀이 눈을 뜨면 낮이고 감으면 밤이 된다. 호흡을 내쉬면 겨울이고 들이마시면 여름이다. 그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있으며 몸은 붉은 색이라고 한다. 축음(燭陰)은 오늘이가 만난 천하대사(天下大蛇)의 모습과 겹쳐짐을 알 수 있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은 대칭적인 의미로서 어둠과 밝음의 대극적인 뜻을 지닌다. 뱀의 이름은 축음(燭陰) 또는 축룡(燭龍)이라고도 한다. 축음(축룡)은 어둠에 갇혀 있는 이에게는 촛불을 입에 물고 비춰 주는 용이라는 뜻이다.³⁴⁾ 뱀이 눈을 감는 것이나 겨울에 동면을 하는 것은 어두운 세계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때 야광주(夜光珠)는 해보다는 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달은 해와 달리 어두운 밤에 촛불과 같은 희미한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신화에서 일월조정과 관련하여 천체에 대한 해석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엄청난 세월의 흔적을 상징한다. 그러한 추정이 그르지 않다면, 달이 먼저 두 개이고 해가 나중에 두 개가 된다는 표현이 이해된다. 달이 두 개라는 것은 지나친 추위를 말한다. 이것은 창세 이후에 선형적 인식이 깃들여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해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시기에 이루어진 흑서기의 표현이다. 이러한 두 시기가 혼란스럽게 전개되다가 마침내 정리된 일월의 위치를 얻게 된다.³⁵⁾

33) 서경호, 위의 책, 201면.

34) 최치원,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제15권.

35) 김현선, 위의 책, 219면.

신화시대 신화인들은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는 우주의 질서를 경험한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우주현상을 겪는 과정에서 직관적인 상상력이 펼쳐졌을 것이다. 이들은 밤이면 달이 뜨고 낮에 해가 뜨는 것을 것으로 바라봄에 따라 만물의 바탕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사는 인세에 혹서기나 혹한기가 불어닥칠 때는 땅의 문제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도 신화인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인 오늘이는 들판에서 솟아난 존재이다. 그러나 같은 제주도 신화라도 본토의 「제석본풀이」와 유사한 「천지왕본풀이」에서 자연의 질서는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문제를 인식함에 따라 천부지모의 신성혼으로 태어난 대별왕·소별왕이 자연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대소별왕이 태어날 때, 옥황상제 천지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일광 둘, 월광 둘, 해와 달 둘을 내보내니 인간 세상이 낮에는 해가 비쳐 뜨거워 낮에 천명 죽게 되고, 밤엔 달도 둘을 내 보내니 인간 백성 열고 추워 죽게 될 때에 옥황상제 천지왕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해도 하나 먹어 보이고, 달도 하나 먹어 보이니, 총명왕 총명부인에게 천정배필을 맺고자 지국성으로 내려선다.<중략>

인간 세상으로 월광 둘이 비치고 일광 둘이 비치 인간 백성들이 살 수 없으니. 천근 활백근살을 받아 앞에 오는 햇님 하나는 두고 뒤에 오는 햇님 하나 쏘아 동해바다에 던져두고, 앞에 오는 달 하나 남겨두고 뒤의 달은 서해바다에 던져 버리니, 그 법으로 해는 하나 동방으로 뜨고 달은 하나 서방으로 지는 법이다.³⁶⁾

「천지왕본풀이」에서 일월의 조정은 옥황의 아들인 대·소별왕이 하늘로 올라가 일광과 월광을 각각 하나씩 쏘아 동해와 서해 바다로 던져버림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로써 해는 동쪽에서 뜨고 달은 서쪽으로 지는 법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천지왕본풀이」보다 더 오랜 연원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천지왕본풀이」와 달리 시간과 계절의 순환은 하계에서 천계로 진행된다.

36)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 민족연구소, 1996, 15-17면.

오늘날 시간을 측정함에 있어서 달의 리듬이 태양의 리듬보다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며, 또한 달이 재생과 동일시된다는 점도 폭넓게 인정된다. 말하자면 달은 겨울 다음에 오는 봄, 서리가 내려 모든 식물이 죽은 다음에 다시 피는 꽃들, 우울한 밤을 지나 다시 떠오르는 태양, 만월 다음에 다시 소생하는 초생달이 암시하듯 재생이나 부활을 암시하는 신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³⁷⁾

뱀이 허물을 벗고 재생하는 것이나 달이 모양을 바꾸어 재생하는 측면에서 이 두 대상은 일련의 관련성이 있다. 「원천강본풀이」에서 대사(大蛇)나 야광주 그리고 연꽃을 통해 신화적인 원형을 함축하고 있다.

연꽃이 윗가지를 꺾어 오늘이에게 줌으로써 꽃을 피운 것은 우주의 조화, 즉 사계절의 질서에 순응하는 원리를 찾았음을 의미한다.

나는겨울에는움이뿌리에들고³⁸⁾정월이나면봄중에들었다이월이되면가지에가소,삼월이나면꽃치되는대상가지에만피고,달은가지에는 아니피니이팔자를물어줍소.

연꽃은 겨울에는 뿌리만 살고 봄이 되면 가지에 꽃이 만발하여야 하는데 윗가지에만 꽃이 피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그 해법은 윗가지를 꺾어 주어야 꽃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연꽃이, 서양에서는 장미가 이런 실현을 상징한다. 그 꽃잎이 ‘우주적 수레’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본질이 실현된 세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상징적 의미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드러나지만 언제나 수의 상징, 말하자면 꽃잎의 수에 의존한다. 고대에 연꽃은, 예컨대 중국, 일본, 인도, 이집트 등의 경우에 알 수 있듯이 만장일치의 선택을 의미했다. 비쉬누의 배꼽에서 자라는 연꽃은 태양의 중심,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 혹은 중심점에서 자라는 우주를 상징한다. 이 연꽃은 신성의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닌다.³⁹⁾ 이 밖에 매일이와 장상어도 사계절이 순환하듯 음양의 결

37) 이승훈 편저,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111면.

38) 뿌리만 살아있다는 뜻.

함으로 조화로운 자연의 질서를 찾는다.

4. 신성한 본보기와 우주 질서

오늘이의 여정은 물리적으로 하계에서 천계로 승천하는 것이지만, 하계에서 천계로의 이동은 속(俗)의 세계에서 성(聖)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오늘이가 혈연을 찾으러 가는 여정은 속(俗)의 여정이요, 신직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성(聖)으로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엘리아데는 신화적인 원형을 ‘모범적인 본보기’(exemplary model) 또는 ‘전범’(典範, paradigm)이라고 하였다. 즉 성스러운 것이 공간 가운데 현현하는 곳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세계가 출현한다. 그러나 성스러운 것의 출현은 하나의 속된 공간의 무형태적인 유동성에 고정점을 추사하고, 카오스 속에 하나의 중심을 투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평의 돌파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우주적 지평 사이(지상과 천상 사이)의 교류를 수립하고, 하나의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의 존재론적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⁴⁰⁾는 것이다.

「원천강본풀이」에서도 옥황의 통치하에 있는 원천강은 엘리아데가 말한 인세를 위한 ‘모범적인 본보기’로서 존재한다. 오늘이 부모는 혼란한 인세를 정화할 목적으로 자신을 찾으러 온 오늘이에게 원천강을 구경시킨다. 원천강은 오늘이가 거쳐 온 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며 인세의 본보기⁴¹⁾로 작용한다. 부모는 오늘이에게 원천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오늘이가 맡은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오늘이 부모가 오늘이를 떠난 것은 옥황의 명을 받들기 위해서이다. 스스

39) 이승훈 편저, 위의 책, 376면.

40) M.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8, 35면.

41) 모든 제의는 원형(archetype)하는 신성한 본보기(divine model)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M.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21면)

로의 힘으로 자신을 찾아온 오늘이에게 부모로서 과업을 부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말로 공수한다. 결과적으로 오늘이의 과업은 오늘이의 신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원천강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오늘이가 신직에 오르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천강은 필연적인 공간이다.

오늘이 부모는 오늘이에게 인세를 구원할 신성한 본보기로 원천강을 보여줌으로써, 혼란한 속(俗)의 세계를 성(聖)의 세계로 인도한다. 속(俗)의 세계는 오늘이가 원천강에 오기 전까지의 세계에 해당하고 성(聖)의 세계는 오늘이는 원천강을 분기점으로 인세로 되돌아감으로써 속(俗)의 세계를 성(聖)의 세계로 정화한다. 신성한 본보기란 구체적으로 ‘사계절’의 질서를 찾아주는 우주 순환의 내용에 해당한다. 수로부인이 신라형 소재주의로서 문학성이 빼어난 이유가 그녀와 관련된 모든 화제가 신화와 비유의 형식적인 상동성에 있다는 것. 신화와 문학은 구조적으로 비유 형식을 가진다. 비유는 압축된 신화이기도 하고 신화는 부풀려진 비유⁴²⁾이기도 하듯이 오늘이가 여정에서 만난 ‘장상이’, ‘매일이’, ‘뱀’, ‘연꽃’ 등도 날짜나 계절과 관련한 우주 차원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성(聖)과 (俗)의 세계는 여러 모로 대조적이다. 원천강은 성(聖)의 세계로, 원천강 밖에 사는 존재들에게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오늘이는 원천강에 있는 부모를 만남으로써 원천강 밖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할 수 있었다. 오늘이 부모는 옥황의 명령으로 원천강을 다스리는데, 원천강의 본보기는 천계라 할 수 있다.

천계의 질서는 원천강을 다스리는 법일 뿐만 아니라, 지상의 혼란을 잠재울 법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사(大蛇)는 축음의 신으로서 밤낮과 계절 같은 추상적 우주 질서와 관련성이 크다. 연꽃은 신화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스러운 식물로서, 식물 숭배라 불리는 것은 주기적인 우주 재생의 신비가 봄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식물 숭배에서 중요한 것은 봄과 식물의 출현이라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신비를 알리는 예언적 징표이다.⁴³⁾

42) 송희복, 「신라정신의 소설적 수용과 낭만적인 전(前) 근대의 서사」, 『國際言語文學』 第三十號, 國際言語文學會, 2014, 307쪽. 293-315면.

인간인 장상이와 매일이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오늘이와 같이 시간과 관련이 깊다. 종산의 신인 뱀이 낮과 밤 그리고 여름과 겨울과 관련이 있듯이, 여성과 남성, 즉 음과 양이 결합해야만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은 우주의 질서아래 순행할 때 조화로운 세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재자는 엘리아데가 말한 천계 즉 위를 향한 출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이를 비롯한 하계의 존재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어 원천강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은 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의 자유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오늘이가 스스로의 뜻에 따라 부모를 찾아 신녀가 되었듯이 세상 만물도 우주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생성관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이가 천상의 본보기인 원천강을 다녀온 후 원천강을 본보기로 무질서한 인세의 우주질서를 바로 잡고 천계로 올라가 신녀가 되어 하는 일이 곧 「원천강본풀이」의 신의 직능이다.

이리한오늘이는인간에강림하야절마다덴기며,원천강을등사하게하얏다⁴⁴⁾

천계에 올라간 오늘이는 신녀가 되어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는 신직을 부여받는다. 절은 무속신화에서 천계와 일정한 관련성을 맺는 공간으로 나온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천계는 옥황이 사는 공간으로 옥황은 인세에 직접 내려오는 양상을 띤다. 하지만 본토의 「제석본풀이」에서 신은 절에서 내려온 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신화라도 천계나 절, 또는 옥황이나 중으로 나타남은 전승과정에서 후대에 불교의 영향을 덧입힌 결과라 볼 수 있다. 오늘이의 신직은 신녀로서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복사하는 일이다. 원천강이 신국이라면 신국은 가시적으로 오늘이의 부모가 다스리는 곳이다. 오늘이가 절에 가서 원천강을 등사한다는 것은 신국(절, 또는 오늘이 부모의 나라)을 본보기로 하여 인세의 우주 질서를 관

43) M.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聖과 俗』, 한길사, 1998, 146면.

44) 기본 자료의 주석에 의하면 '원천강의 화주역을 그리게 했다'로 되어 있다.

장하는 신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이 글은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의 기능을 추출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고, 그 속에 반영된 신화의 속뜻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오늘이의 성격은 여정을 통해 드러난다. 여정은 이정표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수평과 수직 이동이 그것이다. 전자의 목표는 자신의 정체성 찾기이며 후자의 목표는 신직 좌정이다. 첫 번째 목표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여정에서 만난 다른 존재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여정에서 오늘이는 천계를 왕래하여 신직을 부여받는다.

오늘이의 성격은 해원의 기능과 천계 왕래의 기능에서 드러난다. 이 기능은 오늘날 천신곳의 거리과장에서 무당의 기능과 유사하다. 그런데 무당은 신과 간접적으로 교섭하는 반면 오늘이는 신과 직접적으로 만나 공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뿐만 아니라 무당의 기능이 인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과 달리 오늘이는 인간을 비롯한 범우주적 존재들의 문제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원시 애니미즘 사고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대사(大蛇)는 신화시대 낮밤과 계절을 주관하는 신이지만 야광주를 세 개 물고 있는 바람에 승천하지 못한다. 오늘이에게 두 개를 줌으로써 승천하는데 이 때 야광주는 달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연꽃은 우주목으로, 봄에 꽃을 활짝 피우지 못한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오늘이가 일러준 대로 연꽃은 빛가지를 꺾자 정상적으로 꽃을 피운다. 인간인 장상이와 매일기도 마찬가지로이다. 어둠과 밝음, 음과 양이 만나 순환함에 따라 우주와 만물은 자연의 질서를 찾는다.

인세와 원천강의 세계는 혼돈과 질서의 대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엘리아데가 말한 성(聖)과 속(俗)의 세계를 반영한다. 성(聖.)의 세계인 원천강은 옥황이 거주하는 천계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곳으로서 인세의 신성한

본보기로 작용한다. 오늘이는 신국을 모델로 인세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오늘이가 거처간 여정의 두 갈래는 신화의 제명(題名)인 원천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원천강은 신국으로, 인세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세계로 존재한다. 오늘이가 신녀가 되어 인세에서 해야 할 몫은 원천강을 등사하는 일이다. 즉 이상향인 원천강을 복사하여 지상의 우주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ABSTRACT]

Function of Figure and Perception of the Universe in
Narrative Myths 〈Woncheongangbonpuri〉

Gwon, Bok Sun

This study extracts the function of the main character, analyzes the personality and explores the worldview reflected on it.

The journey of 'Oneuri'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paths according to the milestone. The first journey is the search of parents and the second journey is her settlement as a shaman. 'Oneuri' discovers her identity and resolves the problems of other beings on earth while searching for her parents. In the second journey as a shaman, she takes a position where she is mimicking 'Woncheongang.'

Oneuri's true self can be discovered in the function of providing solutions and the function of sending the souls to the heaven. Oneuri's functions can be found in the acts of shamans in Cheonsingut today. Oneuri represents the essence of shamanism from the time of primitive animism as she communicates directly with gods when the shamans today meet gods indirectly through Gut.

Inse and Woncheongang have conflicting characters of chaos and order. This reflects the sacred world and the secular world of Eliade. Woncheongang, the sacred world, is the place that directly communicates with the heaven and sets a sacred example for Inse. Oneuri uses the sacred land of Woncheongang as her model to create order in Inse.

Oneuri's role as a shaman is closely related to 'Woncheongang,' which is a mythical title. 'Woncheongang' is the heavenly place that sets an example for Inse. Oneuri's shamanistic role is mimicking 'Woncheongang.' In other words, Oneuri is a goddess that copies the ideal world of 'Woncheongang.'

Key Words: Oneuri, Function of Providing Solutions, Function of Sending the Souls to the Heaven, Woncheongang, Sacred Example, Chaos, Order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김부식,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83.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이승훈 편저,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赤松智城·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 민족연구소, 1996.
최치원,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제15권.

□ 단행본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서경호, 『山海經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장주근,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정재서, 『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 서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진은영 지음, 『니체, 영원회귀와 차이의 철학』, 그린비, 2007.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M. 엘리아데.이은봉 옮김, 『聖과 俗』, 한길사, 1998.
M.Eliade, The Mith of the Eternal Return(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 논문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연구:<원천강본풀이><세민황제본풀이><허궁애기본풀이>
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2.
권복순,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배달말』 56집, 배달말학회,
2015, 167-194면.
김명옥, 「〈원천강본풀이〉를 재화한 <오늘이>에 나타난 서술전략과 문제연구-그림책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V22, 건국대동화와 번역연구소, 2011, 33-59면.
김민수, 「〈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14.
김유진, 「〈원천강본풀이〉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양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V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2010, 375-402면.

-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원천강본풀이>연구-‘神明에 대한 再考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0, 한국무속학회, 2010, 251-277면.
- 송희복, 「신라정신의 소설적 수용과 낭만적인 전(前) 근대의 서사」, 『國際言語文學』 第三十號, 國際言語文學會, 2014, 307쪽. 293-315면.
- 이명현, 「<오늘이>에 나타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신화적 대안-〈원천강본풀이〉를 재해석한 애니메이션〈오늘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V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119-147면.

이 논문은 2016년 11월 4일 접수되어 11월 25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

